

###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59% 친족 등 '아는 사람'에 당해 해바라기아동센터 실태 조사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 10명 가운데 여섯 명은 친부나 친척, 학원 강사 등 평소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폭력 상담·치료기관인 호남권 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신기숙·이하 아동센터)가 29일 발표한 '아동 성폭력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172명. 이 가운데 59%인 104명은 평소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중 친부·외부 등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체의 24%(42명)로,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11%(19명)의 외부 4%(7명)보다 오히려 많았다. 비친족의 경우 동네 사람이 14%(25명)로 가장 많았고 ▲친구 9%(16명) ▲교사·학원강사 4%(7명) ▲선호배 2%(4명) ▲친구 아버지 2%(4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만 8세~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43%(74명)였으며, 7세 이하 취학 전 피해아동 수는 33%(53명)였다. 피해 아동 5명 중 1명꼴인 32명(18%)은 정신지체아였다.

하지만 아동성폭력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접수 사례 172건 중 고소된 경우는 47%(82건)에 불과했다.

이들 중 38건의 용의자들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짜퉁' 메모리 스틱 대량 판매

경찰, 8명 입건 서울경찰청 의사과는 29일 중국산 가짜 메모리 스틱(데이터 저장 매체)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변모(4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중국 상하이 전자상가에서 일본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짜퉁' 메모리 스틱 1천117개를 구입한 뒤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모두 1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판매한 1~2GB(기가 바이트) 용량의 메모리 스틱은 정품이라면 시중가 30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지만 가격이 7만원 안팎인 중국산 가짜는 정품으로 둔갑해 8만~13만원에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가격에 제품을 샀지만 막상 구입한 제품은 내부 집적회로(IC) 부품이 불안정하고 외관의 부품 재질 역시 쉽게 떨어져 고장율이 정상제품의 7배 가량 높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

▲메모리 스틱(memory stick)=문자와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작은 크기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장매체.

## 기업·관공서 “넥타이를 풀어라”

‘넥타이를 벗어 던져라’

넥타이를 풀고 있는 기업과 관공서가 늘면서 ‘노 타이’(No-tie)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 타이’운동이지만, 매년 여름철이면 고역이었던 넥타이를 벗어던진 공무원과 직장인들은 이를 내심 반기는 눈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부의 ‘공무원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 타이’를 원칙으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경우 체온이 2도 정도 낮아져 실제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

‘노 타이’ 차림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에너지 절약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

때문에 냉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 등 각 기업들도 이달 중순부터 넥타이를 풀었다. 여름 근무 때 체감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춰 에너지를 아끼고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는 취지에서다.

동구정 직원인 지모(41)씨는 “올해는 간부들부터 넥타이를 벗고 있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했다.

이처럼 ‘노 타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류업체들도 남방 겸용 와이셔츠 등 ‘노 타이’를 할 수 있는 간소복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코모도와 레노마, 인터메조, 빈폴, 헤지스 등 캐주얼 및 캐주얼 정장 브랜드들은 여름철 ‘노 타이’ 차림으로 간소하게 입을 수 있는 콤비·남방 셔츠 등을 선보이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반면 넥타이 매출은 급감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달 넥타이 매출이 전년 대비 14.3%가 줄었고, 광주 신세계백화점도 10%가량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올 여름 남성 패션코드는 ‘쿨 비즈’(Cool-Biz, 넥타이를 매지 않고 양복 상의를 입지 않는 운동)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50% 이상의 고객들이 시원한 ‘노 타이’ 패션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넥타이를 풀지 못한 광주은행 등 금융권과 광주 신세계·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직원들은 ‘노 타이’를 내심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아시아 재해 휴먼스쿨팀

전남대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대 아시아 연안 재해 휴먼스쿨팀’이 29일 발대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지진 피해 복구 봉사길에 올랐다. 휴먼스쿨팀은 오는 7월 16일까지 지진 피해지역에서 복구 지원과 함께 자연재해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정장은 업무에 지장” 77%

취업사이트 ‘사람인’ 조사

직장인들은 정장을 입고 일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9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직장인 1천5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유복 출근자’는 78%, ‘정장 차림 출근자’는 31.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출근 복장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복 출근자의 경우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65.6%)는 반응을 보였다. 정장 출근자는 ‘방해가 된다’(37.1%)고 응답했다.

하지만 여름철에 정장 차림을 하고 근무하는 것은 ‘업무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76.8%로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인권위 “여학생 모집제한은 성차별”

목포해양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을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여·20)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측은 학생들이 재학 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 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를 할 때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종의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피불락 치어 불법 운반자 검거

목포 해양경찰은 29일 포획이 금지된 조피불락 치어(몸체 길이 15cm 이하)를 운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활어운반차량 운전기사 김모(52·고흥군 도양읍)씨 등 2명을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전북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이 치어를 불법 포획한 15t급 흑산선적 ‘형제호’ 선장 김모(35)씨 등 달안안 어민 5명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운전기사 김씨 등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신안군 증도면 사육도 탄동리 선착장에 입항한 ‘형제호’로부터 조피불락 치어 30만마리(시가 1천여만 원 상당)를 옮겨 싣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목포=이승휴기자 lsh@kwangju.co.kr



연예저널리스트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명 353부지  
문의 (062)366-4220

PC방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 설치

광주 동부경찰은 29일 PC방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 영업을 해 온 O 게임방 업주 윤모(30)씨와 종업원 백모(38)씨, 손남 신모(29)씨 등 4명을 불잡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는 ‘니쁜 사장’

○미성년자인 여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뜯어낸 다방 업주가 경찰에 달미.

○광주 서부경찰은 28일 미성년자 김모(여·18)양 등 4명의 다방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의 50%를 가로챈 수범으로 지난 1월부터 231회에 걸쳐 2천100여만원의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박모(25·광주시 동구 학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하루 10만원의 매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1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하고, 결근 및 지각비를 부과하고 차 배달과 함께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신문 값으로 월 10만원씩 각출했다고.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KBC 여름방학 영어 캠프

2006년 여름방학 영어 캠프

1. 캠프 기간: 7월 10일(토) ~ 7월 16일(토)

2. 캠프 대상: 초등 4~6학년

3. 캠프 내용: 영어 회화, 영어 노래, 영어 게임, 영어 퀴즈, 영어 요리, 영어 패션쇼 등

4. 캠프 장소: 목포 KBC 방송국

5. 캠프 비용: 1인당 15만원 (식사, 음료, 교재, 캠프비 포함)

6. 캠프 신청: 7월 7일(수) 오후 5시까지

7. 캠프 문의: 1588-8010, 062)367-0505

www.warwell.com